

기본급 159,800원 인상! 금속산업최저임금 확장!
안전보건확보의무 쟁취!



지부교섭 속보

13호

2024.08.28(수)

□발행처:교육선전부 □발행인:권현구 □주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2018 무진빌딩 8층 □전화:043-236-5077 □http://dc.kmwu.kr

[13차 지부교섭 : 의견접근]

드디어 의견접근!

사측 교섭위원, 지난 교섭 파행 사과하고 의견접근



4개월의 노력, 결실 맺어

8월 28일(수) 13차 지부교섭에서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노사 양측은 지난주 축소교섭에서 진행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의견접근안을 만들었다. 지난 교섭에서 조기 퇴근해서 물의를 빚었던 사측 교섭위원은 사과의 뜻을 전하며 사전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했다.

통일요구안 쟁취!

올해 지부교섭에서는 금속노조 통일요구안에 대해 중앙교섭과 동일한 내용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직무를 신설하고 좋은 일자리를 함께 창출하기로 했다.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서는 정부에게 노사 자율에 맡기라고 노사 공동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지부 요구안인 안전보건확보 의무에 대해서도 합의를 마쳤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기초해서 노사 공동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교섭 파행 딛고 노사관계 회복해야

올해 지부교섭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사측 교섭위원은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파행을 겪기도 했다. 대전충북지역이 지난 20여년간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왔다는 자부심이 깨지지 않도록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했다.

13차 교섭 속기록

노사 교섭위원 모두 고생 많으셨다

노 : 오늘 교섭 들어오면서 생각이 많았다. 노측 교섭위원들이 이렇게 양보하면서 교섭 이어가게 만나 하는 생각도 했다. 중앙교섭도 타결되고 타 지부도 마무리 국면이다. 지부도 상황에 맞게 교섭을 끌고 갔다고 사측 교섭위원도 인지하면 좋겠다. 전차 교섭 관련해서 사용자협의회 사과문 받아봤다. 제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지부교섭에서 그런 불미스런 행동, 비상식적, 비도덕적 행위는 결단코 없어야 할 행위라고 생각한다. 이 점 인지하고 유의해달라. 모든 것을 양보하고 가는 교섭인 만큼 오늘은 노측 교섭위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최종 제시안 제출해달라.

사 : 오늘 아침부터 확연히 공기가 시원해져서 다행이다. 지난 교섭 이후에 많은 교훈을 받았다. 소통의 중요성을 느꼈다. 전달 과정에서 충분히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한다. 불가피하게 예정된 일이었는데 소통과정을 간과했던 것이 많은 오해를 사고 당혹스럽게 됐다. 내부에서 문제가 됐던 것을 공장장과 싸우면서 제시안을 만들어 왔다.

<15:33 정회>

<16:26 속개>

사회 : 사전에 실무간에 잠정합의안 도출이 되어 서명 진행하겠다.

노 : 의견접근 하느라 노사 교섭위원 다들 고생 많았다. 한온시스템하고 보쉬는 매각, 고용불안으로 현장 노동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지회 보충교섭에 속도 내주시면 좋겠다. 전체 사업장 임금 부분이 남아있으니 보충교섭에서 임금도 조속히 논의해달라. 오랜 시간 교섭하느라 고생 많으셨다.

사 : 지부장 애기대로 신뢰와 존중 지켜나가겠다. 올해 사업장 교섭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종료 : 16시 34분